

소프라노 김진남 독창회

오늘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소프라노 김진남(사진) 독창회가 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 김씨는 '판토마임' '달빛' '베에로' '출현' 등 4곡으로 구성된 프랑수아즈 인샬주의 작곡가 드뷔시의 '젊음의 4가지 노래'를 들려주며 레너드 번슈타인의 'Mass' 중 'A simple song' 등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김성훈(서울대 등 출강)씨의 기타 반주에 맞춰 영국 류트송의 대가인 존 다울랜드의 곡을 들려주며 피아와 오브라도르스의 스페인 가곡,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 등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전남대를 졸업한 후 미국 뉴욕대학교와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친 김씨는 현재 광주대·호신대 등에 출강중이다. 062-227-74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향 청소년협주곡 연주회

11일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광주시향교향악단 청소년협주곡 연주회가 11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시향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박상아(피아노·열두살 6년), 최경민(오보에·송원초 5년), 신승연(바이올린·살레시오초 6년), 이진영(첼로·정암초 6년), 나유빈(첼로·광주교대부설초 6년), 정민선(바이올린·송원초 5년), 주승희(플루트·송원초 5년) 등이 무대에 오른다. 연주곡목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치마로사 '오보에협주곡 C단조',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C 장조' 등이다. 지휘는 임흥규씨가 맡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살레시오 개교 50주년 미술전

15일까지 자미갤러리·북구청갤러리

살레시오 개교 50주년 기념 제6회 살레시오전이 15일까지 자미갤러리와 북구청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살레시오 중·고등학교 출신 미술인 30여명이 참가한다.

참여작가는 오성복, 최재창, 조윤호, 김중, 조재호, 김만수, 이영재, 강덕원, 박광구, 조영대, 하영술, 조진호, 김숙민, 배일섭, 김태완씨 등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문화상품 가능성 보인 어린이 국악뮤지컬 '흥부랑 놀부랑'

아이들 눈높이 맞춘 국악한마당

제비 다리 거쳐 흥부네 가족이 커다란 박을 탄다. 휘모리로 몰아치는 국악반주에 긴장감은 더해가고, '평'하고 박이 터지면서 무대 앞에 설치된 화려한 불꽃이 타오른다. 관객석의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흥부네 가족들은 덩실덩실 춤추고 노래하며 신명난 판을 벌인다.

전 출연진 어린이들로 구성

지난 5~7일 광주문화예회관에서 공연된 흥부랑 놀부랑이 관객들의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광주 MBC가 2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제작한 '흥부랑 놀부랑'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출연진들을 어린이(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들로만 구성된 국악 뮤지컬로 제작진이 '광주의 문화상품'으로 키우기 위해 야심차게 기획한 작품이다.

제작진은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자랑거리이기도 한 국악에 어린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국악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기 위해 음악 작곡과 춤사위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 작품의 음악은 정통 판소리를 비롯, 국악



지난 5~7일 광주문화예회관에서 선보인 전국 최초의 어린이 국악뮤지컬 '흥부랑 놀부랑'은 앞으로 목포·마산 등 전국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가요, 국악동요, 창극 등 다양한 국악 장르를 활용해 만들었다. 특히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국악 장단을 모두 활용해 창작곡을 만들어 아이들이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역 문화·예술계 합작품

이번 공연에 참여한 28명의 아이들은 4년의 오디션을 거쳐 선발됐다. 지난 12월부터 월산초등

학교에서 연습을 시작한 아이들은 주 6일, 하루 5시간씩 맹연습을 했다.

'흥부랑 놀부랑'은 또 지역 문화계가 함께 만든 연작품이라는 데도 의의가 있다. 국악실내악단 '도드리'(지휘 김재섭)의 신명나는 연주는 공연의 흥미와 긴장감을 배가시켰고 배창희(음악), 김미숙(안무), 간문자(의상), 김은관(무대감독), 권용(무대디자인)씨 등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힘을 보탤었다.

아이들을 배려하다 보니 일부 출연진의 노래와

연기가 미숙한 점과 제비나라 회의 장면 등 극의 흐름을 깨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즐거운 공연이었다.

공연 후 만난 양다현(11·계림초 4년)양은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이 공연을 하니가 훨씬 재미있었고 특히 박타는 장면이 신나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7살 아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한성숙(30·광주시 서구 진월동)씨는 "어른들이 연기하면 목소리도 다르고 해서 아이들이 쉽게 질려 하는데 또 레전구들이 직접하니 아이들이 몰입을 잘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DVD 제작 '국악교육' 보급

제작진은 앞으로 출연진을 정제화하고 극의 구성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이며 교육용 DVD 제작도 기획중이다. 또 6·15 통일축전 참가를 타진중이며 내년 아시아문화의 전당에서 열릴 예정인 교육엑스포에도 출품할 계획이다.

'흥부랑 놀부랑'은 목포(10일) 해남(13일) 마산(27일) 등에서 공연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젊은 작가들 국경 초월한 '도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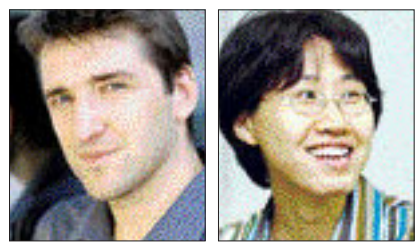
국제문학축제 '2006 서울' 원탁 토론·에세이 발표회 등

국경을 초월한 젊은 작가들이 일주일동안 서울을 '점령'(?)한다.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윤지관) 주최로 지난 7일 개막한 국제문학축제 '2006 서울, 젊은 작가들'은 한국과 외국 작가들이 속삭이듯 함께하며 격의 없이 토론과 답사를 나누는 행사로, 국내외 작가 36명이 참가했다.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일보사 송년클럽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칠레, 크로아티아, 일본 등지의 세계 15개국 작가 16명과 국내 작가 20명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 일주일간의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행사를 주관한 윤지관 한국문학번역원장은 "이 행사는 국내 작가와 외국 작가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자리"라며 "4대륙 15개국 젊은 작가 한자리에 모여 속삭이듯 함께 토론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초청 작가 올라 토카르츠크는 "그동안



〈조열 에글로프〉 〈진영서씨〉

안 북예어 등을 통해 유럽 작가들을 만날 기회는 많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다양한 외국 작가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져보기는 처음"이라며 "(세계의 작가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작가들은 이날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일주일간의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9일에는 한국작가와 외국작가가 각각 절반씩 참여한 그룹을 지은 뒤 정해진 세션

통해 각자의 에세이를 발표하거나 주제별 원탁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10~11일에는 경북 풍기, 안동, 영주를 방문해 한국의 전통불교와 유교문화를 탐방하고 속삭이를 함께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문학과 창작을 주제로 다양한 형식의 토론을 벌인다.

아울러 외국 작가들은 서울에 머무는 동안 독자 사인회나 출판기념회, 각 해당 언어 전공 대학생들과 토론회 등을 마련, 독자와 직접적인 만남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내 작가=레나 안데르손(스웨덴), 블라디미르 아르세니예비치(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르셀로 비르마헤르(아르헨티나), 파벨 브릿츠(체코), 피터 캠퍼온(미국), 폴리 클라(영국), 알레한드라 코스타마그나(칠레), 드리고만 피르지(헝가리), 조엘 에글로프(프랑스), 야코프 하인(독일) 등

▲국내 작가=김연경, 김연수, 김중혁, 김택환, 박형준, 성기완, 오수연, 윤성희, 이기호, 이만교, 이명량, 이은중, 정영문, 조경란, 진은영, 천은영, 하성란, 한 강, 함정원, 허혜정 등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심상으로 빛은 달마

성인호씨 '선달마화'展 12~18일 목포문화예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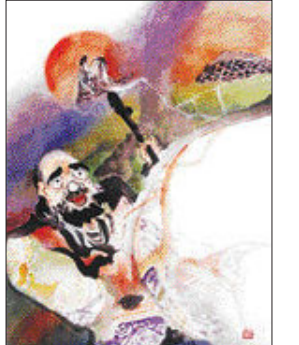
그린 사람의 성정에 따라 다양한 얼굴로 다가오는 달마대사(達摩大師), 40여년 동안 달마를 화폭에 담아 온 한국화가 성인호씨가 심상(心象)으로 빛은 달마의 모습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목포문화예회관 6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선(禪) 달마화'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 전시에서 성씨는 다양한 달마의 모습을 형상화, 불립문자(不立文字)를 통해 '禪'을 추구했던 달마의 참모습 50점을 내놓았다.

작품 '반야의 달마'는 해탈의 문턱을 막 넘어서려는 고뇌의 끝자락에서 '오호라'하고 무릎을 치는 달마를 그려냄으로써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열반의 경지를 엿보게 한다. '반야심경 달마상'은 '불토(佛土)를 맑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맑게 하라'는 달마관심론을 화폭에 담았다.

성씨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한국화 수상 부문에서 5차례 입상했으며, 세종미술대상전 추천작가, 백제미술대상전 초대작가를 지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반야의 달마'

A*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자산컨설팅의 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구획
Tel : 062)973-9174, 016-757-8800

수완·신창·첨단지구
택지·상업용지 중개전문

구입상담
주유소·공장, 충전소, 골프연습장, 병원, 복지시설 등
대형사업용 부지

매도상담
대형 토지, 건물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중개합니다

첨단지구 상업용지
100평 115평 150평 202평
550평 600평 1100평 3000평 기어

수완택지개발지구
협업도인택지, 이주지역지
생태대체육지, 상업용지 등

신창택지 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우림사업
(복지시설, 기원, 골프장, 축사 등)
보성 4만평, 9만평

골프연습장, 대형물류유통단지
광산구 1만평, 2만평

호텔, 수익성건물
장성 3000평 해남공단 720평

기타 광주·전남권 토지 건물

장성·담양권 물건구함
매도 매수 교환 보유부식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000여만원)
062)973-9177, 011-625-1382

아주 특별한 제안

독점상권의 상업지역
■ 지하층~지상6층, 연건평-2,500평
■ 특별분양·임대 상담환영

종합병원

▶ 엘리베이터 2대
▶ 주차장(150대) 완비
▶ 건물 준공 검사필
▶ 분할도 가능함

사우나(찜질방)

▶ 주차장 완비
▶ 제반시설 및 지하수 풍부
▶ 장성군민의 절대우치, 희망업종

건축주, 시공사, 시행사
주식회사 삼호주택이 직접 분양·임대분양

장성 삼호센트럴타워

● 분양/임대 상담문의: 061)393-5550
● 특별 상담(본부장): 011-624-1115

국민지도
http://www.hanmap.co.kr 국민지리정보(주)

◆ 최신정보수록, 3월 도시계획고시안 확정
◆ 2006 광주광역시 지적, 임야 약도 판매중
◆ 광주광역시 책자 5천분의 1 150,000원 판매중
100,000원 판매중
◆ 광주광역시 책자 포켓용 3만5천원

국민지리정보(주)대리점 모집 (광주지역 2곳)
현재 시판중인 지번도책 목록
광주광역시, 나주시, 광양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장성군, 함평군,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 광주지사 : 062-385-0114
• 목포지사 : 061-284-7833
• 순천지사 : 061-744-0973

광주지사 위치: 삼촌동 무진로 버들마을앞

중앙국토개발건설
(한) 011-647-3500
(광주) 061-744-9966
(광주) 011-607-9908
(양산) 051-744-9966
(양산) 051-744-9908

상가, 점포

◆ 지상동 5층 상가, 대45평, 건 110평, 월건주거지역, 20m 도로, 교통양호, 1, 2, 3층 사무실, 4, 5층 주택, 매도 3억3천만원

원룸

◆ 계림동 송선관광호텔 앞 원룸, 대지53, 건물 중당 940평, 지하층, 지상4층(원룸11개, 부동3개)

전원주택, 별장용지

◆ 전남 나주 풍림리, 자연녹지, 850평, 평당20만원, 조경가

산평매매

◆ 광주 남구 안동동 대촌중안초교 건너(평간제 옆) 개발제한, 자연녹지, 840평, 평당20만원, 조경가

중고용 임야

◆ 장성 북이면 원터리, 25,195평,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구역, 차량출입용이, 계곡이 흐르고 전면에 저수지, 정남향, 평당 12,000원

◆ 광주 동구 소태동, 13,093평, 자연녹지, 차량출입용이, 전기공급됨, 지내에 야수터 소재,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시되었음, 평당12,000원

모지용 임야

◆ 화순 이십곡리, 너릿재와 검분소 사이 우측 임야, 2500평, 평당 50,000원, 조경가

GS부동산컨설팅
T. 572-7744, 9966
(한) 011-607-9908
(양산) 051-744-9966
(양산) 051-744-9908

상가임대

1층: 약국, 금은방, 안경점
2층: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3층: 안과, 치과
4층: 화원, 기타

양산동, 신개발지 중영4거리 코너 APT 5000여세대 밀집 지역 상업 최고

분양권매매

● 양산동 GS 그린자이

35평형 분양가 1억5800
3600 납부, 최상층 남향 중저리인 매매가 1억7천
42평형 분양가 2억5000
1억2천 납부 16층 중저리인 맨윗층 전면최고
매매가 2억7000만
49평형 분양가 2억4200
1억5천납부 17층 중저리인 남향 조망권 최고
매매가 2억6천
56평형 분양가 2억8천
2천800 납부, 풀옵션
10층 조망권 최고
매매가 2억8천8백

현진에버빌 다량 확보

용한공인중개사
T. (대) 682-8911
(용인) 031-820-1111

원룸, 상가전문

● 원룸주택 및 상가건물
투자 및 수익성 좋은 물건 다량 보유(2억원대부터) 거주하면서 임대수익을 원하시는분께 추천

● 원룸 및 상가부지
활발하게 신축중인 지구내(원룸부지: 평당 170만원부터)
(상가부지: 평당 250만원부터) 건축하실 분 연락요망

▶ 급히 구합니다 ▶

● 풍양, 금호지구 부지
- 원룸부지 : 70평이상
- 상가부지 : 90평이상

● 임대대금
- 원룸
- 상가(점포)
- 사무실

▶ 매도, 매수, 건축, 투자 상담 환영!!!

★ 믿음과 정성으로 성실, 책임중개 ★

●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성실하고 믿음직으로 알차실 여성 부동산입니다.